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강 순 경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현재 북한의 함경도(함경 남북도 포함) 방언의 모음 체계를 실험 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필자가 이미 연구하여 놓은 서울 표준말과 평양 문화어의 모음 체계와 대조 연구하여 우리 나라 여러 방언 모음 체계의 특성이나 혹은 공통적 성향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함경도 방언 지역이란 종래 육진 방언 지역이라 일컬어졌던 함북 두만강 지역과 지도상에 나타나는 함경 남북도 지역을 다 포함하는데, 현재 북한은 1988년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황해도 대신에 황해 남북도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1945년 해방되던 해의 북한의 행정구역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북의 지도와 유사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북한의 1945년말 지도를 사용한다.

함경도 방언의 모음 연구는 문화어로 대표되는 평안도 모음 연구와는 달리 여러 면에서 그 어려움이 많이 있다. 첫째로, 이북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당국에 의해 장려되고 육성되는 반면에, 함경 방언을 포함한 기타 방언들은 1960년 중반 무렵 문화 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없애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표준말을 쓰도록 강요함은 물론이고, 9년이라는 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여러 곳의 방언이 섞인 특이한 군대말을 쓰기 때문에 순수한 함경도 방언을 산골에 사는 노파 이외에는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함경 남북도는 방대한 지역이고 산세도 험한 곳이 많아서 인적 교류가 활발치 못하였던 관계로 같은 함경도 내에서도 방언의 차이가 많아 왔다. 학자에 따라서는 함경도 방언권을 김병제(1980)와 같이 두 지역(육진 지역과 함경 지역)으로 혹은 김태균(1983)처럼 세 지역(육진, 사읍, 전이 방언 지역)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대한 지역에서 모음 체계의 공통 분모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문제이다.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셋째로, 함경 방언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 간행된 Kazan 자료 이외에도, 小倉進平(1927), Ramsey(1978), J.R.P. King(1991), 전학석(1987) 등의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으며, 해방 후 남북한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곽충구(1994), 이기동(1987) 등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음 음성학에 기초를 둔 음운론적 연구였으며, 조사 방법도 곽충구(1992:382)의 지적대로 “남한에서 연구한 함경도 방언은 현재 함경도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현지 조사의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사였다”라고 슬회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 즉 그들의 조사 대상자는 6.25때 남하한 실향민이거나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함경도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함경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과는 적어도 50여 년의 세월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말은 항상 변한다”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그 동안 남북한에서 있어 온 정치적인 격동은 반세기라는 세월의 공백이 오늘날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갈라놓은 것만큼의 분기령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현재 함경도에서 사용하는 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함경도 지방에서 귀순한 지 1년 내외의 사람을 실험대상자로 삼았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 말의 공통분모를 얻기 위하여,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남녀 일곱 사람을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6.25때 남하한 함경도 사람들의 대화를 듣거나 이북에서 발간된 관계 문헌 등을 참조하였다.

2. 실 험

2. 1. 피실험자

함경도 발음의 실험대상자로 모두 6명을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출신 도시 및 귀순 날짜 등은 다음과 같다.

화자 HA : 최 동 철(30세).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출생.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1995년 12월 귀순

부 -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리 출생

모 - 함경북도 청진시 해방동 출생

화자 HB : 김 정 용(27세). 함경북도 길주군 주남구 출생. 함경도에서 고등학교 졸업.

1996년 1월 귀순

부 - 함경북도 명천군 락동면 출생

모 - 함경북도 화새군 불료리 출생

화자 HC : 홍 진 희(28세).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구역 출생. 함흥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1996년 1월 귀순

부 - 일본 오사카 출생 (복송 교포, 조모; 경상도 출생)

모 -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 구역 출생

화자 HE : 이 옥 금(48세). 함경남도 갑산군 회진면 관장리 출생. 고등학교
졸업.

1994년 4월 귀순

부 - 함경남도 갑산군 회린면 출생

모 - 함경남도 갑산군 회린면 출생

화자 HF : 이 순 옥(50세). 함경북도 청진시 해방동 출생.

함경북도 청진시 경제전문학교 졸업.

1995년 12월 귀순

부 - 러시아(해방전) 출생. 1945년 해방 당시 귀국

모 - 러시아(해방전) 출생. 1945년 해방 당시 귀국

화자 HG : 허 광 일(43세). 함경북도 성진시(현 김책시) 쌍암동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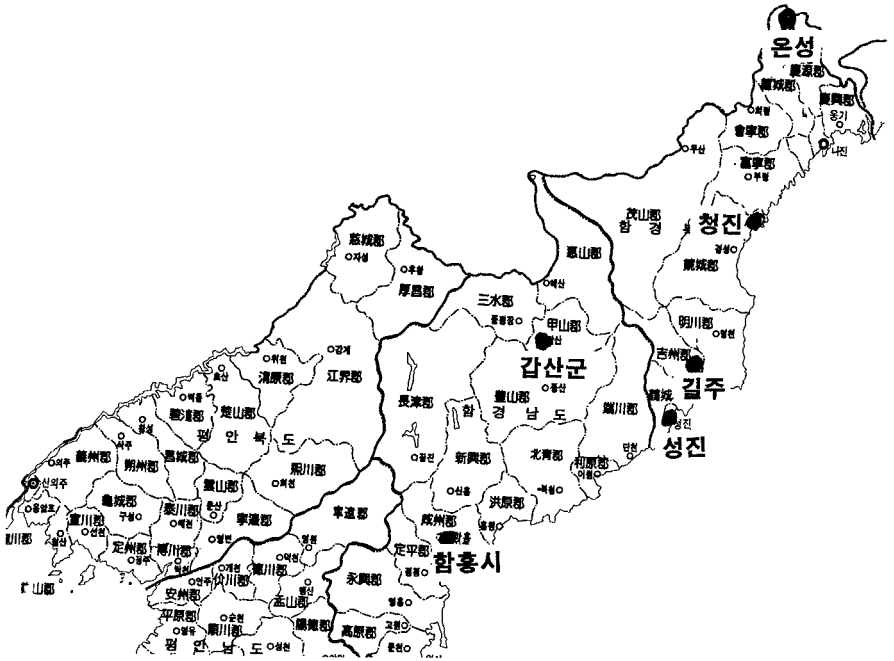
청진 선박공업대학 졸업.

1993년 9월 귀순

부 - 함경북도 길주군 양사면 출생

모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출생

화자를 선정할 때 그의 출신지까지 고려할 만큼 선택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선정된 화자들의 출신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면 함경북도 최북단 온성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진, 길주, 성진(현 김책)으로 이어져 있어서 함경북도 북에서 남까지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화자가 나왔고, 함경남도도 북쪽 갑산에 한사람, 그리고 남쪽 함흥시에 한사람씩 나와 있어서 함경 남북도 여러 곳의 발음을 조사하는 효과가 있어서 연구를 위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함경방언 화자의 출신지 : 위로부터 은성, 청진, 길주, 성진(함경북도), 갑산군, 함흥시(함경남도))

그림 1 1945년말의 북한 행정구역

2.2. 실험 방법

방법은 평양 발음 연구와의 균형을 위하여 평양 모음을 연구할 때와 같은 방법을 되도록 사용하였다. 즉 단순 모음 8개를 고립형으로, 그리고 8개의 단순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문장형으로 각각 녹음실에서 읽도록 하였는데, 고립형으로 읽도록 한 것은 nonsense words를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였고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읽도록 한 것은 평상시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단어들은 “나는 ____ (이)라고 말했지”라는 문장 속에서 읽도록 하였다.

8개의 단순 모음이 포함된 16개 문장의 순서를 뒤섞은 것(randomized)을 다섯번씩 반복하여 녹음실에서 읽도록 하였는데 총 문장수 560개를 CSL(Computerized Speech Lab)에서 측정하여서 형성음(formant frequency) 1, 2의 음가를 얻었고 이것을 Macintosh에서 plot formant로 분석하였다. 이 plot formant는 Ladefoged가 개발한 것으로 표준편차(standard deri-

vation)를 계산하여 모음 영역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고립 모음>

이 에 애 으 우 아 어 오
기 게 개 그 구 가 거 고

<문장 속 단어>

“나는 ___(이)라고 말했지.”

모음	○	ㄱ
ㅣ (i)	이불	기분
ㅔ (e)	에라(모르겠다)	게임(놀이)
ㅚ (ɛ)	애기	개혁
ㅏ (a)	아이	가방
ㅑ (ʌ)	어뢰	거미
ㅓ (o)	오번	곡식
ㅜ (u)	우수	구별
ㅡ (ɨ)	응시	금지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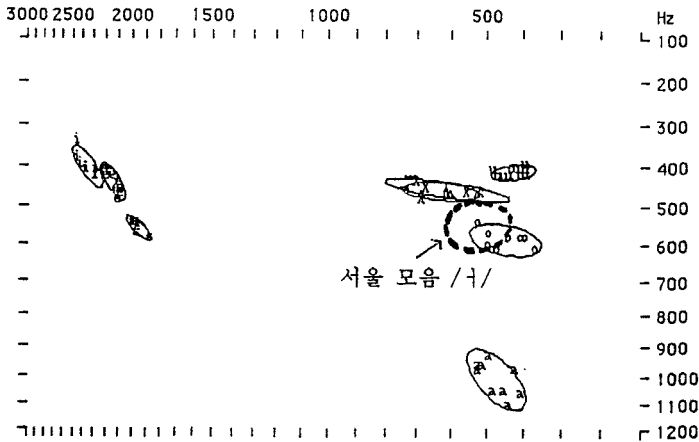
모음은 앞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formant 1, 2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음의 음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어휘를 고르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선 고립 모음이거나 문장 속 단어이거나 모두 8개의 모음이 자음 다음에 오지 않고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어휘들을 선택하여 실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어휘만을 골라서 실험할 때에는 plot formant상 나타나는 모음 조음점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음 영역을 측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자음 다음에 오는 모음들의 어휘를 실험하여 측정하려 한다면 모음 앞에 오는 자음의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음 영역 측정에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한 이유로 이 실험에서는 모음의 고른 음가를 얻기 위하여 자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휘와 자음 가운데서 coarticulation이 심하여 뒤에 오는 모음에 가까워져서 비교적 모음의 음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후설 자음인 velar consonant ‘ㄱ’다음에 오는 모음을 선택하여 함께 실험하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함경 방언 화자 다섯 사람의 모음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나왔다. (화자 HA는 함북 온성군 출신이었으나 특이한 발음을 하고 있어서 모음 /ㅚ/와 /ㅙ/ 분석시 이외에는 제외시켰다.)

3. 1. 서울 모음 /ㅜ/와 비슷한 함경 방언의 /ㅜ/의 음가

함경 방언의 후설 모음 /ㅜ/의 모음 구도상의 위치는 서울 모음의 /ㅜ/의 위치와 비슷하다. 이는 함경 화자 5사람의 발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음가를 plot formant상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 HF의 경우는 모음 /ㅜ/와 /ㅙ/가 완전히 겹쳐있다)

그림 2 함경 화자 HF의 모음과 서울 모음 /ㅜ/와 /ㅙ/의 비교
(서울 모음 점선 표시)

음가 상으로 볼 때 함경 방언의 /ㅜ/의 음가는 서울말의 /ㅜ/의 음가와 비슷하며, 실제로 함경 방언 화자들이 “오번”과 “봄” 등을 발음할 때 우리 귀에는 “어번”과 “범”으로 들리는 까닭은 서울말의 /ㅜ/와 함경도의 /ㅜ/의 음가가 다르고 오히려 함경도의 /ㅜ/가 우리의 /ㅜ/의 음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이미 본인이 실험하였던 평양 말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서울 발음으로 시행된 청취 test에서도 함경 화자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것이 서울말의 “범”을 “봄”으로 인식하는 등, 다섯 화자 모두가 /ㅜ/를 /ㅙ/

로 잘못 인식한 것은, 비록 철자는 다르지만 서울말과 함경 방언의 /ɨ/와 /ɯ/의 음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3.2. /ɨ/ 모음의 전진 상승 현상

서울말에서는 모음 구도 상에서의 /ɨ/의 위치는 /ɯ/ 모음 보다 아래쪽에 그리고 약간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함경 방언에서의 /ɨ/의 위치는 /ɯ/ 모음보다 훨씬 앞쪽에 그리고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마치 서울 모음의 /ɨ/와 /ɯ/의 위치와 뒤바뀐 듯한 인상을 준다. 함경 방언의 /ɯ/와 /ɨ/는 음가 상으로는 혼동될 염려가 없어서 청취 test에서도 함경 화자들이 서울말의 /ɯ/를 /ɨ/로 잘못 듣는 일은 다섯 사람 중 한 사람뿐이었다. /ɨ/ 모음의 전진 상승 현상은 평양 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북 방언들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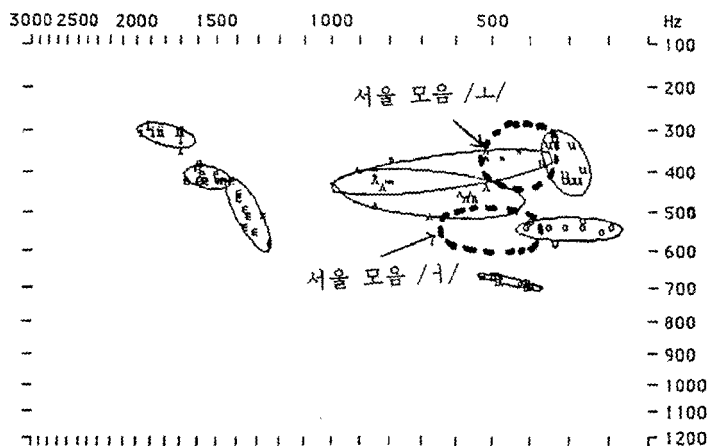


그림 3 함경 화자 HG의 모음과 서울 모음 /ɨ/와 /ɯ/의 비교 (서울 모음 점선 표시)

3.3. 후설 모음의 혼합(merge) 현상

다섯 화자의 모음 구도를 보면 후설 모음 사이에서 혼합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3.3.1. /ɨ/ 모음과 /ɯ/ 모음의 혼합 현상

모음 /ɨ/와 /ɯ/의 혼합 현상은 다섯 사람 중 네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며 혼합하는 정도는 한 사람(화자 HC)만 제외하고는 두 모음의 화자 HB는 ; 그리고 화자 HE, HG의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합쳤으며, 화자 HF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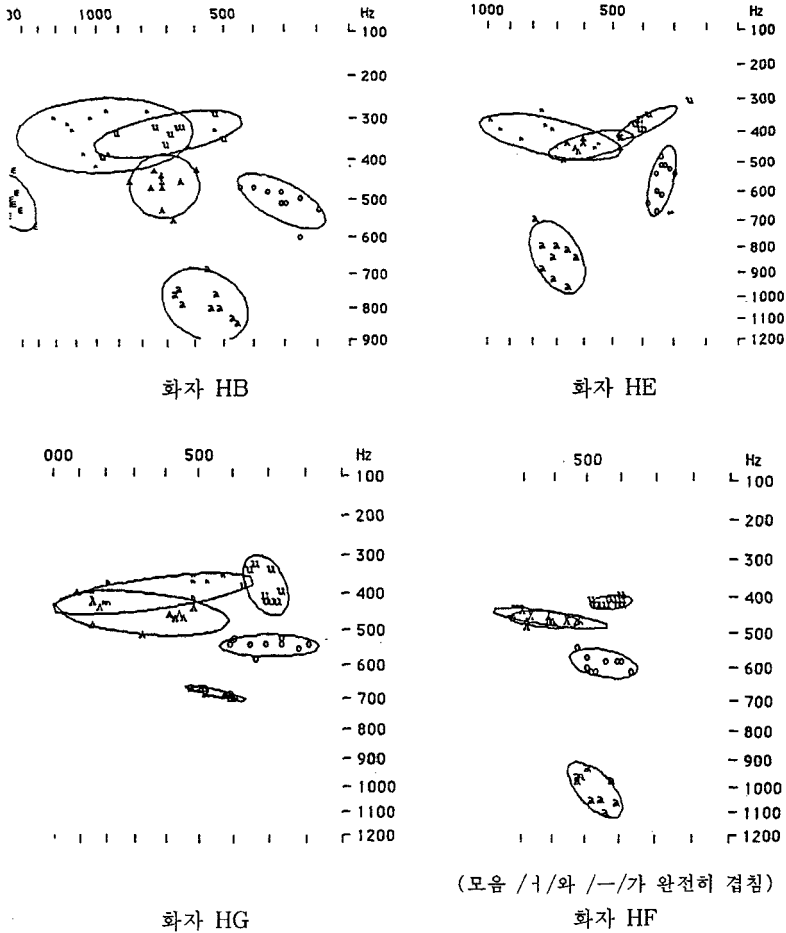


그림 4 함경 화자들(HB, HE, HF, HG)의 모음 혼합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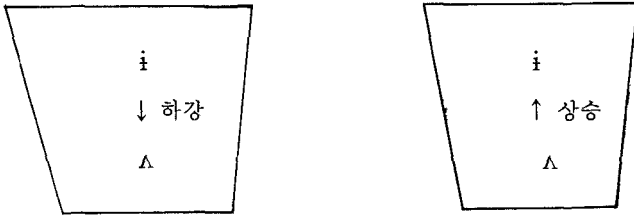
경우에는 모음 /ɪ/와 /ɛ/가 완전히 겹쳐 있어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발음은 고립 형태로 발음할 때에는 /ɪ/와 /ɛ/의 구별이 어려웠고 특히 연구개 자음인 /ɣ/ 다음에 모음 /ɛ/나 /ɪ/가 올 경우에는 변별이 더욱 어려웠다. 특히 문장 내에서 화자 HG의 경우 “거미”는 거의 “그미”처럼 들렸다. 위에 소개한 네 사람의 plot formant상의 모음 체계는 고립 모음일 때의 것인데, 고립 모음을 발음할 때는 nonsense words를 발음할 때와 같이 의식적인 변별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의 모음 구도에서 /ɪ/와 /ɛ/ 모음의 혼합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이들의 일상 대화상의 발음에서는 두 모음의 혼합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서 어쩌면 변별력 상실에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다섯 화자의 문장 내의 발음에서는 이 두 모음의 혼합 현상은 다섯 사람 모두에게 나타났으며 그 정도도 고립 모음 때보다 심화되었다.

모음 /ɨ/와 모음 /-/의 혼합 현상은 경상도 방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방언에서는 두 모음은 이미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모음 /ɨ/와 /ɯ/의 변별 기능 상실과 함께 경상도 모음 체계는 6모음 체계가 되고 있다.

국어 학자들 간에는 함경도와 경상도 방언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두 방언의 성조 및 위와 같은 음운 현상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두 방언 지역에서 모음 /ɨ/와 모음 /-/가 합병하는 방향은 각기 달라서, 경상 방언에서는 모음 /-/가 밑으로 내려와 /ɨ/ 모음과 혼합(김부식,1985)하는데 반해서, 함경 화자 모음에서는 모음 /ɨ/가 모음 /-/쪽으로 상승하여 혼합하고 있다.



경상 방언 /ɨ/와 /-/ 혼합

함경 화자들의 /ɨ/와 /-/의 혼합

그림 5 경상 방언과 함경 화자들의 혼합 방향

함경 화자들의 모음 /ɨ/와 모음 /-/의 혼합하는 방향이 상승인 것은 두 모음을 혼합 발음하지 않는 화자와 혼합 발음하는 화자들의 F1의 음가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 화자 HB의 F1 평균값 (/ɨ/와 /-/혼합 아니함)	· 화자 HG의 F1 평균값 (/ɨ/와 /-/ 혼합)
/ɨ/ F1 583 Hz F2 1270 Hz	/ɨ/ F1 437 Hz F2 948 Hz
/-/ F1 408 Hz F2 992 Hz	/-/ F1 423 Hz F2 934 Hz

형성음의 F1값은 혀의 높이를 표시해 주고 그 수치가 작을수록 혀의 높이는 높아지는데 /ㄱ/와 /ㄴ/가 혼합되는 화자의 /ㄱ/의 F1의 수치는 그렇지 않은 화자의 F1의 수치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ㄱ/가 /ㄴ/쪽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혼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력에 이끌리듯 /ㄴ/ 모음도 약 15Hz가량 밑으로 끌리지만 (HG /ㄴ/ 모음의 F1값 423Hz - HB의 /ㄴ/ 모음 F1값 408Hz=15Hz) /ㄱ/ 모음이 /ㄴ/쪽으로 46Hz 가량 끌려올라가므로(혼합 아니하는 HB의 /ㄱ/ 모음의 F1값 583Hz - 혼합하는 HG의 /ㄱ/ 모음의 F1값 437Hz = 46Hz) 전체적인 혼합 방향은 상향인 것이다.

/ㄱ/ 모음의 /ㄴ/ 모음으로의 상승 현상은 함경 남북도의 구별 없이 네 사람의 화자에게서 다 나타났고, 연령도 27세부터 50세까지 남녀여서 함경도 방언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3.3.2. 모음 /ㄴ/의 모음 /ㄷ/로의 혼합 현상

모음 /ㄴ/가 모음 /ㄷ/로 혼합하는 현상은 다섯 사람 중 세 사람(HB, HG, HC)에게서 나타났으며, 혼합하는 정도는 극히 일부분이고(그림 4 참조), 특히 HC의 경우에는 경계만 닿고 있다. 그 중에서 HB와 HG의 경우는 모음 /ㄱ/와 /ㄴ/, 모음 /ㄴ/와 /ㄷ/의 두 종류의 혼합 현상을 다 보이고 있다. 이들의 나이는 각기 27세, 43세 남자이며, 그들의 고향이 함북의 길주와 성진이어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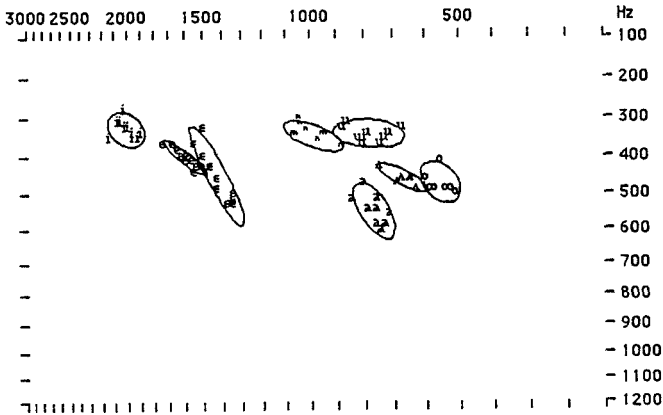


그림 6 화자 HC의 모음

모음 /ㄴ/와 /ㄷ/의 혼합은 필자가 연구(1995)한 평양 방언에서도 나타

난 현상인데 그들이 “굼”을 “굸”으로, “흠”을 “흸”으로 발음하는 것은 평양 말의 뚜렷한 특징이었다. 함경 화자 세 사람이 보인 모음 /-/가 /ɾ/로의 혼합 현상은 함경도 일부 지역의 모음 현상인지, 아니면 성진이 항구도 시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여러 곳의 방언(이르테면 평양 방언 등)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필자가 청취한 70대의 성진 출신의 신헌민(남)도 “그래 그래”를 “구래 구래”로 발음하고 있는 것은 함경북도 성진(현 김책시) 근처를 기점으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쓰이는 발음의 특색이 아닐까 생각된다.

4. 함경 방언의 단순 모음의 수

필자는 함경 방언의 모음 연구를 위하여 평양 방언을 연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덟 개의 단순 모음을 실험 분석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 신헌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함경도의 모음을 /ɿ/와 /ɨ/를 포함하여 10 모음 체계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이기동, 1987).

함경도 모음에서 /ɿ/와 /ɨ/가 [ø]와 [ü]로 실현되는 지를 알기 위하여 실험 연구에 참여하였던 함경도 화자 6사람으로 하여금 “외국, 외부, 외상, 외신”과 “위선, 위해, 위임, 위험”을 직접 발음하도록 하였고 HF(50세)와 HG(43세)의 발음은 CSL로 단순 모음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는 필자의 청취력으로 판단하여 보았다. 그 중에 성진 출신의 HG(43세)만이 /ɿ/를 [ø]로 발음하였고, /ɨ/는 이중 모음 [wi]로 발음하였다. 그러나 성진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길주 출신의 HB(27세)는 모음의 혼합(모음 /ɨ/가 /-/로 혼합, 모음 /-/가 /ɾ/로 혼합)은 HG와 매우 흡사한 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ɿ/는 [ɛ]로 /ɨ/는 [i]로 발음하였으며 성진 출신의 화자 HF(50세, 여)는 모두 이중 모음 [we]와 [wi]로 발음하였다. 나머지 화자들도 /ɿ/를 [ɛ]로 /ɨ/를 [i]로 발음하거나, 아예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였다. 여섯 화자들의 /ɿ/와 /ɨ/의 발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발음은 현재 함경도 지방에서 지역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단순 모음으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으며 서울 모음에서처럼 예전의 10모음 체계 속에 존재하였던 [ø]와 [ü]의 발음의 잔재는 60, 70대 이상의 발음이나 HG와 같이 개인 발음(idiolect)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한영순(1967) 등은 그의 논저에서 ‘외/위’가 [ɛ]/[i]로 실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외/위’가 [ɛ]/[i]로 발음되는 것은 6명의 함경 화자 가운데서 4사람의 발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ø]와 [ü]는 현재 함경 방언에서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위’가 [ɛ]/[i]로 실현되는 것은 경상도 발음에서도 들을 수 있는 현상과 같다.

10모음에서 /ㄱ/와 /ㄷ/를 제외한 8개 모음 중에서 함경 화자들이 보인 /ㄱ/와 /ㄷ/ 모음의 혼합 현상은 실험상에서는 변별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plot formant상에 나타난 모음 영역에서는 모음 /ㄱ/와 /ㄷ/의 혼합 부분은 다섯 사람 중 네 사람에게서나 두 모음의 많은 부분이 겹칠 정도(그림 2 참조)였고 문장상에서는 다섯 모두의 발음에서 두 모음의 많은 부분이 혼합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함경 화자들이 귀순한 지 1년 안팎인데다가 형사를 대동하고 녹음실에 와서 마이크 앞에서 대본을 보고 철자 그대로 발음해야 하는 경직된 분위기에서는 이들에게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기대하기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자기들만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ㄱ/와 /ㄷ/가 포함된 단어를 구사할 때에는 두 모음을 더 혼합 발음할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 함경도 모음 체계에서 모음 /ㄱ/가 /ㄷ/로 상승 혼합하는 현상을 다룬 실험 연구가 다른 학자에 의해 이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방 후 현재까지 반세기라는 세월 동안 발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는 8모음 체계이며 만약 모음 /ㄱ/가 모음 /ㄷ/로 상승 혼합하는 것까지 인정된다면 7개의 모음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음 /ㄱ/가 /ㄷ/로의 혼합 현상은 아직 진행 단계인 것 같고 완성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울 말의 모음 체계는 학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8모음 체계로 보고 있으며, 모음 /ㄱ/가 모음 /ㄷ/로 상승 혼합하는 현상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7모음 체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 화자 중 60~70대의 발음에서는 아직도 모음 /ㄱ/와 /ㄷ/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모음의 혼합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울 모음을 7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함경 화자들의 모음 /ㄱ/와 /ㄷ/의 혼합 현상이 완성 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합의 정도를 보아서는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를 7모음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본 실험에서는 다섯 사람의 화자 중에서 함경 남도와 북도를 경계로 하여 모음 체계가 제각기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함경 남북도 출신들의 발음에서 앞에서 설명한 함경 방언의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므로 특별히 함경 방언을 남북도로 각각 나눌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성군 출신의 화자(HA)에게서는 육진 방언의 특색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는 거의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된 서울 표준말과 평양말 그리고 함경 방언의 모음 수는 다음과 같다.

i	i	u	i	u	i	i	u
e	Λ	o	e	o	e	(Λ)	o
	a			a		ε	
							a

서울 모음 체계 (7개) 평양 모음 체계 (5개) 함경 모음 체계 (8(7)개)

그림 7 서울, 평양, 함경도의 모음 체계

함경 방언에서 모음들 간의 혼합 현상은 평양 방언과 마찬가지로 후설 모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특징이 있으나, 평양 방언에서는 모음 /ɨ/, /ɯ/, /-/와 /ɳ/의 네 후설 모음들이 혼합 현상에 참여하는데 반하여, 함경 방언에서는 /ɨ/, /-/와 /ɳ/의 세 모음들 간에서만 혼합 현상이 일어나고 모음 /ɯ/는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5. 유표 이론(theory of markedness)과 Martinet의 push chain

앞에 논의한 함경 방언의 후설의 세 모음들이 /ɨ/는 /-/로 그리고 /-/는 다시 /ɳ/로 혼합하는 과정이나, 평양 모음에서 후설의 네 모음이 /-/는 /ɳ/로 /ɨ/는 /ɯ/로 혼합하는 현상은 음성 변화 과정에서 음성 체계의 모음 수가 단순화하려는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평양 방언 연구에서 필자는 이 현상을 Chomsky적 유표 이론으로 표시하였는데, 이것을 함경 방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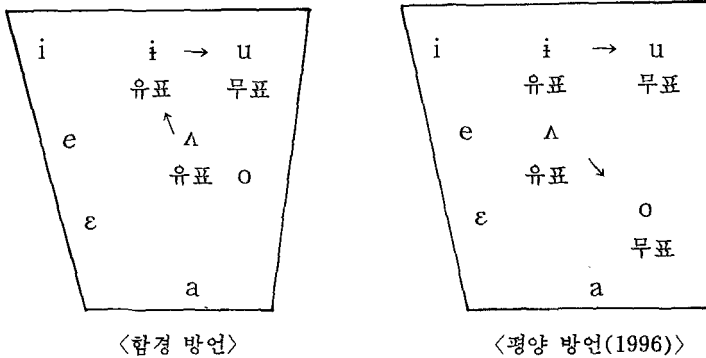


그림 8 함경 방언과 평양 방언의 무표로의 이동

함경 방언에서 모음 /ɨ/가 /-/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것은 보다 덜 기본적인 유표 /ɨ/가 같은 유표음인 /-/로 혼합한다. 그런데 혼합 움직임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머지않아 유표음인 /-/는 다시 무표음 /ɿ/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서 혼합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ɨ/가 /-/로 혼합된 7모음 체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서라도 보다 안정된 5모음 체계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움직임은 변별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곽충구(1996)는 일찍이 함북 방언의 모음의 움직임을 Martinet의 push chain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André Martinet는 역사적으로 모음의 변화를 “push chain”과 “drag chain”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변화는 모음 공간에서 모음이 너무 밀집한 곳을 피하기 위하여 덜 밀집한 공간으로 밀고 나가거나(push chain), 모음이 없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모음을 끌어당기거나(drag chain)하는 현상으로, 그 결과 모음간의 등거리(equi-distance)와 변별력의 극대화(maximal differentiation)가 이루어지고 음운 체계의 균형과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Martinet의 push chain 현상을 함경 방언의 모음 혼합 움직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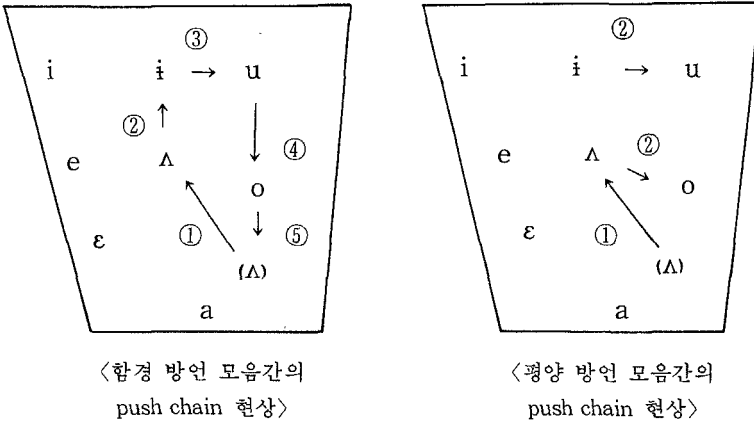


그림 9 함경 방언과 평양 방언의 push chain현상

함경 방언에서 (평양 모음에서도 마찬가지임) 모음 /ɨ/의 위치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동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ɨ/ 모음은 다른 모음에 비하여 불안정하고 발음되는 음역도 광범위하여, 음성 변화 과정에서 /ɿ/ 모음 밑에 위치하였던 /ɨ/ 모음이 우연한 기회에 앞에 있는 덜 밀집된 공간으로 밀고 올라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push chain). 이렇게 올라온 /ɨ/

모음은 평양, 함경 방언의 경우, 그 위치에 그대로 안주하게 된다. /ɨ/ 모음은 다시 위쪽에 위치한 /ɨ/ 모음과 인접하게 되는데, /ɨ/가 /ɨ/쪽으로 상승하여 혼합하여서 변별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두 모음이 변별력이 있으려면 /ɨ/ 모음에 밀린 /ɨ/는 다시 후설에 위치한 모음 /ɨ/가 있는 쪽으로 밀리게 된다. /ɨ/ 모음에 밀린 /ɨ/ 모음은 /ɨ/ 모음이 원래 있었던 빈 공간에 끌려 내려온(drag chain) /ɨ/ 모음을 따라 모음 /ɨ/도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push chain은 한바퀴 돌면서 모음의 위치는 조금씩 바뀌게 된다.

함경 방언에서 모음 /ɨ/가 /ɨ/와 혼합되고 다시 모음 /ɨ/와 혼합되려는 과정은 모음 체계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모음은 구별하기 쉬운 모음들과 혼합하여 모음 청취를 극대화시키고, 모음 체계의 균형과 단순함을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

6. 결 론

함경 화자의 발음을 실험한 결과 그들의 모음 체계에는 8개의 단순 모음이 존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모음 /ɨ/가 /ɨ/로 상승 혼합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정도가 변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이북 땅의 함경도 발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위의 현상이 보편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7모음 체계가 인정될 것이다.

본 실험을 위하여 선택된 다섯 사람의 화자들의 발음이 함경 방언을 대표할 만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순수한 함경도 방언을 찾으려면 함경도 산골에서 도시와 접촉 없이 살고 있는 노파의 발음을 청취해야 한다고 하나, 함경도를 대표하는 방언이 반드시 산골에 고립되어 사는 사람만의 발음이어야 한다는 데는 필자는 의문을 가진다. 함경도 방언이란 함경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발음이어야 하고, 산골에 살건 도시에 살건 상관없이 그들 고유 발음의 공통분모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함경도 방언이며, 옛날의 방언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임은 당연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는 본 실험에 참여한 함경 화자들의 발음은 함경 남북도 여러 지역 출신인 만큼 함경 방언의 공통분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이들 발음은 함경 방언의 특징 일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육진 방언에서 모음 /ɨ/와 /ɨ/가 음운론적 상실을 하고 있다는(곽충구, 1994) 보고는 있으나, 함경 방언에서의 /ɨ/와 /ɨ/의 변별력에 관해서는 학자간의 논란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 참여한 다섯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고립 모음 형태일 때는 /ɨ/와 /ɨ/는 확실히 구별하였으나, 문장 내의 발음에서는 모음 /ɨ/는 /ɨ/로 상승 혼합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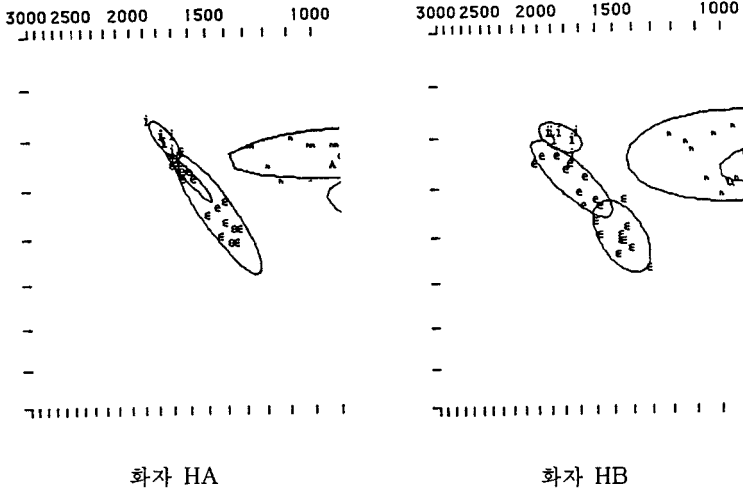


그림 10 함경 화자의 /꺀/와 /꺁/의 혼합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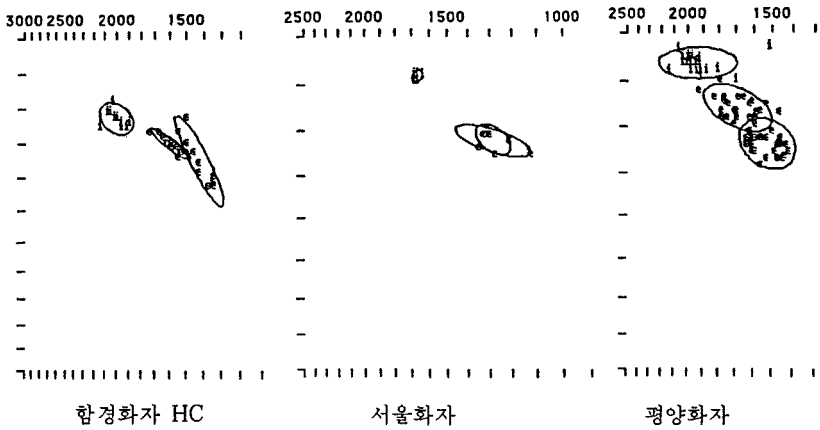


그림 11 모음 /꺀/와 /꺁/의 혼합 현상

모음 /꺀/가 /꺁/로 상승하는 것만큼은 심하지 않다. (그림 10 참조)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 /꺀/와 /꺁/의 혼합 현상은 서울 표준말과 평양 방언, 그리고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아마도 우리 나라 여러 방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음운 변화라고 생각된다(경상 방언에서도 볼 수 있음. 김무식, 1985).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음운의 변화는 Martinet가 주장하듯 단순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함경 방언에서 모음 /ɨ/와 /ɯ/의 혼합과 모음 /ɥ/와 /ɨ/의 혼합은 6개의 모음 체계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은 6모음 체계에 남은 /ɯ/ 모음은 함경 방언 모음 체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표이며, 음운 변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무표인 /ɨ/ 모음 쪽으로 중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청취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체계의 단순성을 위해서도 6모음 체계보다는 5모음 체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평양 방언의 모음 체계는 원래 8개의 모음이었던 것이 혼합(/ɨ/→/ɯ/와 /ɯ/→/ɨ/)과 상승 작용(/ɥ/→/ɨ/)으로 5 모음 체계가 되었으며, 서울 표준말의 모음 체계도 8개였던 것이 상승 작용(/ɥ/→/ɨ/)으로 7모음 체계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모음들 간의 상승화 작용으로 5개의 모음 체계로 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음 체계의 단순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방언들의 모음 체계 방향이라고 여겨지며, 본 실험에서 연구된 함경 방언도 서서히 5모음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지나,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순경 (1995) '표준말과 문화어의 장단 모음 분석,' 동서문화연구 제3집, 홍익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 _____ (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제 32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곽충구 (1994)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인문과학 제 10집,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1992) '함경도 방언 연구의 전개 과정과 그 전망,' 김영배 편저, 남북한의 방언연구, 서울: 경운출판사.
- _____ (개인 담화, 1996)
- 김무식 (1985) '경상도 방언 /ɨ/와 /ɯ/ 모음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문학과 어학연구 33, 서울: 문학과 어학연구소.
- 김병제 (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태균 (1983) '함북방언 조사연구 I,' 우보 전병두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이기동 (1987)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전학석 (1987) '훈춘지방말의 어음론적 특성,' 조선어문서사론문집,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한영순 (1967)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 小創進平 (1927) '咸鏡南北道 方言,' 朝鮮語 2.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Y: Harper & Row.
- Kent, Ray D. and Read, Charles (1992) *The Acoustic Analysis & Speech*, San Diego, California: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King, J.R.P. (1991)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Doctori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ing, Robert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ew Jersey: Prentice-Hall.
- Malmberg, Bertil (1970) *Manual of Phonetic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Martinet, André (1970) 'Phonetics and Linguistic Evolution,' in Malmberg (ed.) pp. 464-487.
- Ramsey, S. 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Seoul: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ABSTRACT

The Vowel Systems of the Hamkyong Dialect

Soon-Kyung Kang

This paper aims to acoustically analyze the vowel systems of the Hamkyong Dialect of North Korea and find the phonological rules which exist in the Seoul and the Pyongyang dialect previously analyzed by the author.

For my research, 5 subjects who recently fled from Hamkyong Province of North Korea were selected. Among the 5 subjects, 4 speakers are males and one is female whose ages are from twenty seven to fifty. I selected two types of test frames: one is an isolated form of eight simple vowels and the other is vocabulary which contains eight simple vowels. Each word was read in a sentence frame "I said ____."

The pronunciation of the five subjects was recorded in a sound-proof room and analyzed with the CSL (Computerized Speech Lab) and the plot

formant on Macintosh.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1) In the Hamkyong dialect, there exist the eight simple vowel system /i, e, ε, ʌ, ɪ, u, o, a/. However, in the experiment the vowel /ʌ/ of four speakers tends to merge into the vowel space of /ɪ/. In most of their pronunciations the vowel /ʌ/ and the vowel /ɪ/ have lost their distinctiveness. If we take out the /ʌ/ from the eight vowels, the Hamkyong dialect has a seven vowel system.

2) In the Hamkyong dialect, the simple vowels /ø/ and /ü/ do not exist anymore, though in some speaker's pronunciation we hear the simple vowel sounds of /ø/ and /ü/ rarely.

3) The vowel /ʌ/ has an unusual place in the vowel space of the Hamkyong dialect. Its position is just below that of the vowel /ɪ/. That will explain the merging of the vowel /ʌ/ into the vowel /ɪ/ and also the Martinet's push chain theory.

4) The quality of the vowel /o/ in the Hamkyong dialect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eoul dialect. This brings the misunderstanding of [oɾʌŋ] “오번” as [ʌɾʌŋ] “어번” for Seoul speakers.

5)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vowels, they merge into each other. The final goal of the vowel system is the simplification of the system in terms of maximal differentiation.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the front vowels merge into each other in the Seoul dialect whereas the back vowels merge into each other in the Hamkyong and the Pyongyang dialect. However, the vowels which participate in merging are only three vowels /ʌ/, /ɪ/, and /u/ in the Hamkyong dialect while the vowels /ʌ/, /ɪ/, /u/, and /o/ merge in the Pyongyang dialect.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21-791